

일본의 양계업

신란계

부가가치 높은 계란 가공기계 발매

유한회사 산교오(三共)기연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각종 계란 가공기계를 판매해오고 있는데, 동사는 계란 생산자나 유통업자, 전문 가공업자들로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기계의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다른 신제품들을 새롭게 발매하고 있다.

난각이 있는 계란의 초음파 조미장치, 삶은 계란, 온천란 자동조리기, 훈제란 제조기 「스모그머신」, 수증기에 첨가장치, 탈취강화를 위한 소형 난유제조기, 삶은 계란 실 금란 저장고, 난백가공조미제조기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기계 등이다(계명신문).



윤 병 선

한경대 G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신형 계란 라벨인쇄기 발매

(주)大共과 (주)進共는 오오사카 시링인쇄(주)와 함께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형 고속계란 라벨라 「EG-8형」을 발매하였다. (주)進共은 1975년부터 계란 라벨 인쇄기 판매를 시작한지 30년 경과한 회사이다. 이번에 GP센터의 대형화와 월일이 들어간 표식지가 침부된 계란 증가에 따라, 「EG-2,3,4,5,7형」에 계란 라벨 인쇄기를 넣어 대폭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EG-8형」의 주요한 특징은 (1)시대의 요청이기도 한 이력추적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대 12자리 코드를 인쇄가능(영문은 대문자로 A~Z, 숫자 0~9, 스페이스), (2)월일 인쇄의 잘못을 예방하는 달력기능을 탑재하여 내부의 시계와 연동시켜, 상미기간 등의 월일 인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조작 실수에 의한 월일 인쇄의 실수 예방, (3)최대 20종류의 인쇄양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활자와 형태를 양식으로 등록하여 간단하게 활자의 변경 가능, (4)전용키를 사용하여 키를 누르면 이전의 월일이 인쇄된 라벨의 송출이 가능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인쇄, (5)라벨인쇄 길이를 단축하여 지금까지보다 잘못된 라벨의 변경에 의한 손실을 50% 절감할 수 있다(계명신문).

난가기금보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금액 요구

농림성은 8월 26일 2006년도 예산요구에서 난가의 폭락 시 가입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난가기금의 보조는 금년과 같은 약 134억원을 요구하였다. 신규 「계란수요구조조사분석·정보제공사업」은 2005년의 「계란안전·품질향상추진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에 38,000만원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수요에 맞는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1)계란수요구조의 조사연구와 그 정보제공, (2)계란이나 계란부산물의 가능성 조사분석과 새로운 소비와 이용방법의 검토를 하도록 한다.

그밖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곡물의 비축사업 「옥수수, 수수의 60만톤 비축 등」이나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 사업, 외국산사료용 보리의 구입, 보관, 판매를 하는 사업을 식량관리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유통사료의 안정공급대책」은 453억5천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계명신문).



계사 방서 대책 중점 연구

도요오(東洋)시스템(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계사의 여름철 더위 대책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여름에는 강하고 겨울에는 입기구를 분할하여 계사내 온도차이가 거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새로운 터널 환기방법을 활용하여 종래의 무창계사의 환기개선과 개방계사의 여름철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취수원이 있는 농장에서는 여기에 쿨링패드를 도입하거나, 건물 구조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루핑을 이용하여 방서대책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여름철 대책에 새로운 터널환기를 개발한 1997년부터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자료를 얻고 있다. 지구온난화 가운데 이러한 결과와 함께 시공경험을 조합해서 효과적인 방서대책으로 활용하고 환경조건이 좋은 계사로 만들어 경제적인 비용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계명신문).

전국 일제 조류 인플루엔자 실태 조사

농림수산성은 지난 7월 11일 생산·유통·가공·소매·소비자단체의 대표자를 모아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전국적인 조사 실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명확한 임상증상이 없는 약병원성으로 계란·계육은 안전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전하였으며,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소문피해도 적었고, 소매관계자나 소비자도 침착하게 대응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 내 침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육수수 1,000수 이상의 양계장을 대상으로 1개 농장에서 10수 이상의 닭에서 혈청항체를 조사하여 감염되었다면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혈청아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조사한다.

감염이 확인된 농장은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살 처분하게 되지만, 양성반응이 많이 확인된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필요한 가금질병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대응하기로 되어 있다(계명신문).

양계산물 산적한 문제 해결 방안

WTO나 FTA 등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는 가운데 소비자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식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품과 경쟁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본산 양계산물의 공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수입품보다 우수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자 스스로가 경영 체질을 강화하여 거래에서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기준법 등을 비롯한 행정 시책의 규제완화실현에 지금까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안심을 위한 노력은 생산부터 유통·소매현장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이력제의 실시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전체의 수급이나 물류실태에서 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디까지 수행해야 할 것인가? 또한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신뢰받는 표시에도 노력해야 한다(계명신문).